

규제지역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(서울경제 등, 4.17) >

◆ 혼란 키운 부동산 3종 규제지역 '관리지역'으로 통합

□ 보도에서 언급된 규제지역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- 국토부는 1월 3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,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
-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,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	책임자	과 장	성호철 (044-201-3328)
		담당자	사무관	임상준 (044-201-3324)